

보도일시	2022. 1. 28.(금) 조간 * 인터넷 2022. 1. 27.(목) 12:00 이후 / 총 37쪽		
담당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부연구위원 김수현	043-870-82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기획팀	팀장 유재훈	02-6009-322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

전자·철강·반도체 ‘증가’, 디스플레이 ‘감소’, 기계·조선·섬유·자동차·건설·금융보험 ‘유지’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전자·철강·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조선·섬유·자동차·건설·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주요 업종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유지	유지	증가	유지	증가	증가	유지	감소	유지	유지

**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유지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 중국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으나, 2022년 세계 기계 산업은 작년 대비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산업의 설비 투자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기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환경규제 등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임비 상승, 운송 지연, 반도체 수급 불안 지속, 원자재가 상승 등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하면서 기계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조선 : 유지

-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모멘텀 둔화 및 선가 급등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세로 2022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대비 감소해 최근 10년 평균 발주량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MO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가스연료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는 기술 우위인 국내 조선 업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선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5%(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자 : 증가

- 2022년 전자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자·IT 제품의 수요 지속, 5G 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폴더블폰 시장 성장세 지속으로 프리미엄 전략 모델인 폴더블폰 수출 확대, 주요 부품 수급 개선에 따른 공급 확대가 예상되며, OLED TV의 성장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1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섬유 : 유지

○ 국내 섬유 업종은 글로벌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미국 및 EU 등의 섬유 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역시 의류·섬유제품의 보복 소비 및 온라인 판매 증가세 지속, 자동차 등의 전방산업 수요 회복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의 섬유패션 수요 회복에 따른 국산 중간재·가공재 등의 수출 증가와 원부자재 수입 및 국내 생산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변이 확산 리스크, 스마트 공장 및 제조 로봇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5%(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철강 : 증가

○ 철강 업종은 국내 수요 강세, 수출 확대, 수입산 유입 축소 등 수급 여건 변화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업종 내수는 2022년 상반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며, 수출은 전 세계 철강 수요 확대, 물류 환경 개선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2022년 최대 수입 대상국인 중국의 자국시장 우선 공급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철강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9%(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반도체 : 증가

-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는 고객사의 제고 수준이 높아 상반기 수요 둔화 이후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스템 반도체는 수요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수요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2022년 국내 반도체 업체의 수출은 2021년 대비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는 상반기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있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템 반도체 등은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 따른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수출 증가, 설비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자동차 : 유지

- 2022년도 상반기에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 및 친환경차 해외 판매 확대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나,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지속, 업계 신차 출시 감소 등으로 내수는 전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미크론 재확산 및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은 잠재하고 있어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디스플레이 : 감소

○ 2022년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LCD 시장 축소로 전년대비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TV뿐 아니라 IT 제품 수요 증가와 폴더블, LTPO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에 따라 OLED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CD 시장은 2021년 크게 증가한 언택트 수요가 감소하고 LCD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의 2022년 수출은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와 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LCD 생산 축소와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9> 건설 : 유지

○ 2022년 상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민간, 공공 모두 토목, 비주택 수주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건설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도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수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재, 금융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투자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건설 투자가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에는 건축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공공 부문 토목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투자 증가에도 건설 수주 증가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27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금융 및 보험 : 유지

○ 금융 업종의 자산과 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도 자산과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권은 순이자마진 상승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던 기업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순이자마진이 상승하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완화되면서 보험 업종의 전반적인 영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 등이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및 이익 증가세 둔화,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금융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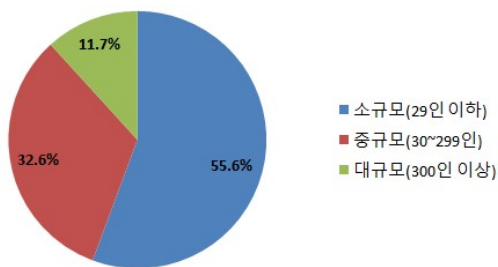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김수현 부연구위원(☎043-870-8230)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상반기 일자리전망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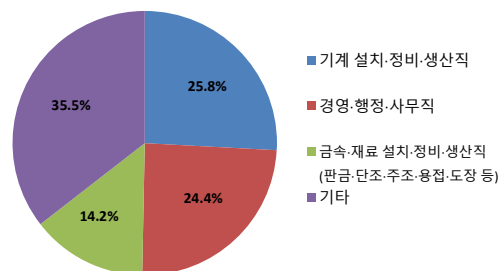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1년 하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769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4,551천 명)의 5.3%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8.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8.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8.2%), 경기 시흥시(4.2%), 경남 김해시 (3.7%), 경남 창원시 성산구(3.4%), 부산 강서구 (3.3%), 인천 남동구 (3.1%), 경기 안산시 단원구(3.1%)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5.8%), 경영·행정·사무직(24.4%),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14.2%) 등으로 구성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0년 하반기(750천 명) 대비 2.6%, 20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9.8천 명, 채용인원 28.7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1.1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27.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9%p 높고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하면 13.7%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7.8%)',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2.0%)',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8.4%)'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8.0%), 제조 단순직(18.6%),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16.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8.6%), 경남(14.4%), 충남(7.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4.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학력무관', '경력무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5.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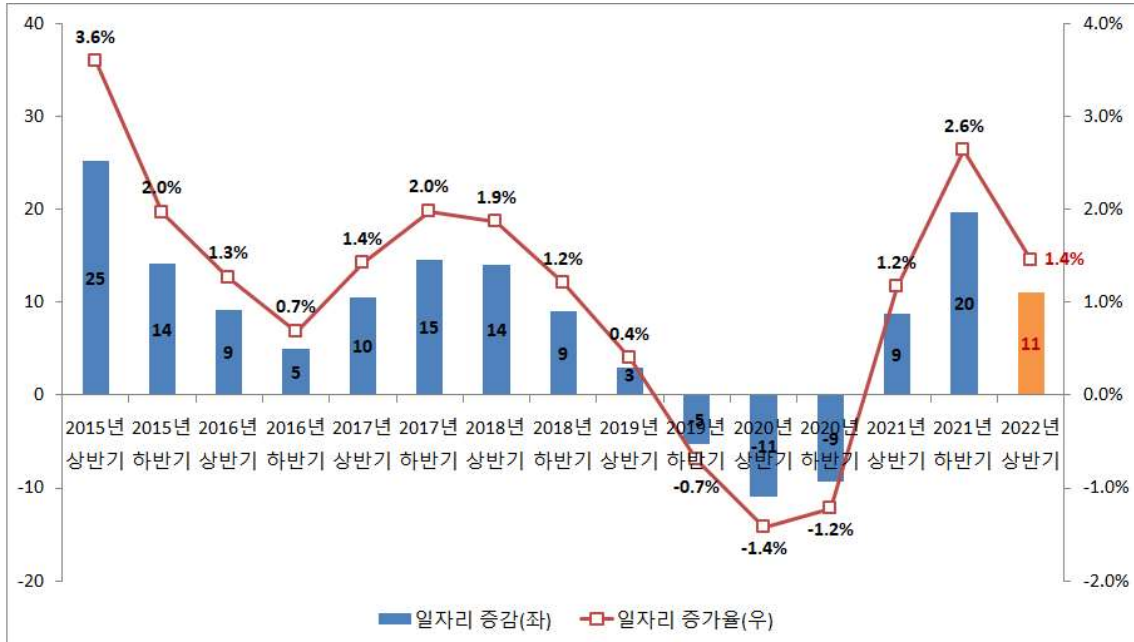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 및 신재생부문 관련 투자 증가,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기계 수요 증가 전망
 - * 2022년 상반기 일반기계부문 수출 전망 전년동기비 4.1% 증가(산업연구원, 2021.12)
 -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요산업 중심 신규설비 투자 증가와 유럽 지역의 친환경 관련 설비투자 확대 영향으로 공작기계 수출 증가 전망
 - 단, 전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임비 상승, 운송 지연, 반도체 수급 불안 지속, 원자재가 상승 등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내수) 마중 간 무역분쟁, 중국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일부 위험 요소가 남아있으나, 정부의 SOC 투자 증가와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등 성장세 전망
 - * 2022년 상반기 일반기계부문 내수 전망 전년동기비 7.3% 증가(산업연구원, 2021.12)
 - 국내 수요산업의 호조로 내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특히, 2021년부터 지속된 비대면의 일상화로 서비스 로봇, 자동화 설비 등 관련 산업의 성장세 예상
 - * 2020년 서비스용 로봇 매출 전년대비 34.9% 증가(한국로봇산업협회, 2021.12)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8상반기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1.9	1.2	0.4	-0.7	-1.4	-1.2	1.2	2.6	1.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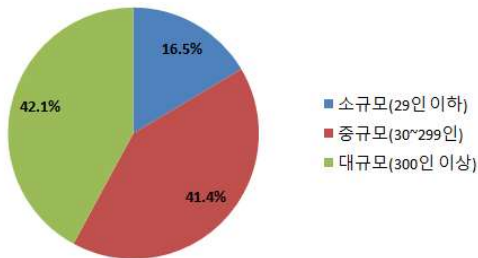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상반기 기계 업종은 전년 동기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5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경기, 경남, 경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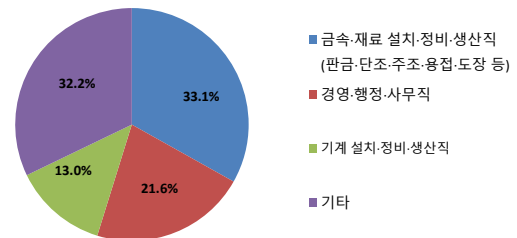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과 해양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조물)로 구성되는 국가 주력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1년 하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00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4,551천 명)의 0.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37.7%), 울산 동구(29.4%)에 전체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군 (12.3%), 부산 영도구(3.4%), 경남 창원시 진해구(2.14) 등에도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33.1%), 경영·행정·사무직(21.6%),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3.0%) 등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0년 하반기(105천 명) 대비 5.3%, 6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7천 명, 채용인원 2.1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6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21.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3%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하면 7.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2.1%),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 유치 경쟁 때문',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각 25.0%)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43.8%), 기계설치·정비·생산직(20.6%), 경영·행정·사무직(12.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울산(47.4%), 경남(27.5%), 전남(18.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2.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1.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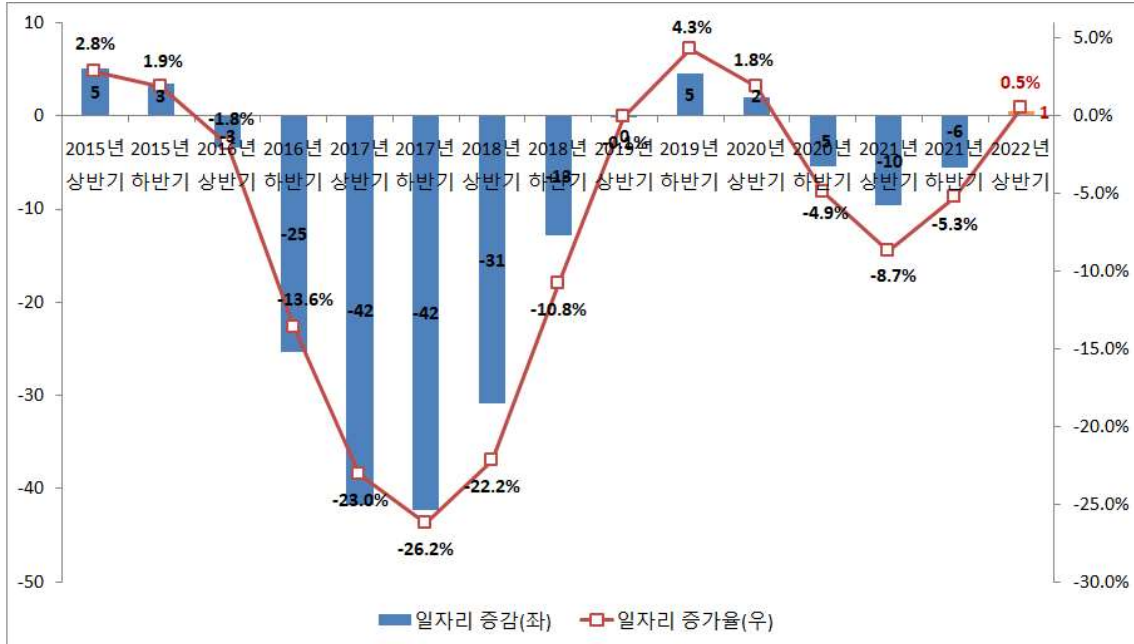
경기전망

- (산업전반) 2022년 전 세계 발주는 36.0백만CGT로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10년 평균 발주량 수준(34.7백만CGT)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모멘텀 둔화 및 선가 급등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세로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국내 조선업) 2022년 국내 수주량은 약 13.0백만CGT로 수주 점유율 37%대 유지 전망, IMO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가스연료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라 기술 우위인 국내 조선 업종 수혜 예상
- (수출) 2022년 선박류 수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발주 급감 시기(~2020년 3분기)의 여파로 전년(230억 달러) 대비 16.7% 감소한 191.6억 달러 전망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연도/분기	일자리 증가율(%)
'18상반기	-22.2
'18하반기	-10.8
'19상반기	-0.1
'19하반기	4.3
'20상반기	1.8
'20하반기	-4.9
'21상반기	-8.7
'21하반기	-5.3
'22상반기	0.5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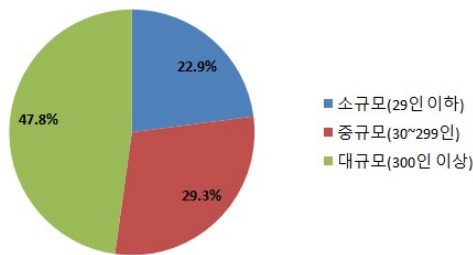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상반기 조선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5%(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울산, 전남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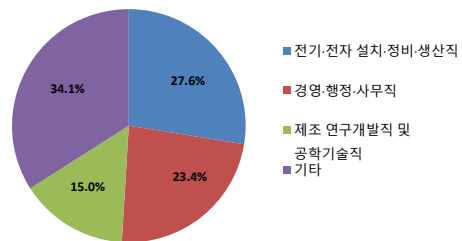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컴퓨터, TV, 대형가전, 이차전지, 센서 등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1년 하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26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4,551천 명)의 5.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8.3%), 전기장비 제조업(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9.4%)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17.8%), 서울 영등포구(10.2%), 경기 용인시 기흥구(5.3%), 경기 화성시(3.7%), 경기 안산시 단원구(3.6%)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27.6%), 경영·행정·사무직(23.4%), 제조 연구개발직 및 기술공학직(15.0%) 등으로 구성
-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0년 하반기(697천 명) 대비 4.2%, 29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모두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6.8천 명, 채용인원 23.1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7천 개
 - 전자 업종의 미충원율은 13.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하면 0.5%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7.2%)',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6.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1.4%)'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40.2%), 경영·행정·사무직(13.4%),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1.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7.3%), 경북(10.5%), 인천(9.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7.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학력무관, 경력무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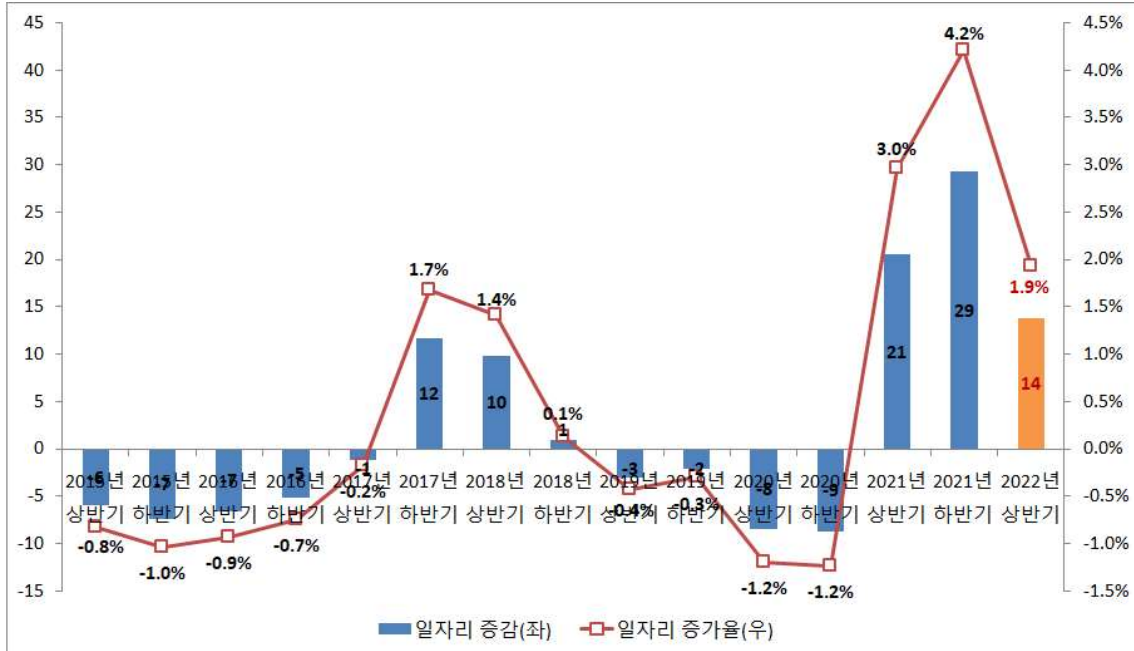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2년 전자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5G 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수요 증가 전망
 - * 제조업 ICT 출하증감률(%) : (2020.3Q) 3.3 → (4Q) 15.3 → (2021.1Q) 19.9 → (2Q) 22.7 → (3Q) 14.5
 - ** 제조업 ICT 재고증감률(%) : (2020.3Q) 1.7 → (4Q) 5.4 → (2021.1Q) △3.1 → (2Q) △20.6 → (3Q) △6.9
 - (휴대폰) 폴더블폰 시장 성장세 지속으로 프리미엄 전략 모델인 폴더블폰 수출 확대, 주요 부품 수급 개선에 따른 공급 확대 등으로 생산 증가 전망
 - *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성장률(IDC, %) : (2020)15.9 → (2021) 34.0 → (2022) 45.9
 - (D-TV) OLED TV(740만 대, 13.5% ↑)는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LCD TV(2.09억 대, △1.0%)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체 TV 시장(2억 1,672만 대, △0.6%)은 역성장을 보일 전망
 - * OLED TV 성장률 추이(CMDIA, %) : (2020.3Q) 39.8 → (4Q) 37.7 → (2021.1Q) 90.6 → (2Q) 169.6 → (3Q) 65.2
 - ** LCD TV 성장률 추이(CMDIA, %) : (2020.3Q) 14.5 → (4Q) 1.9 → (2021.1Q) 8.8 → (2Q) 2.6 → (3Q) -21.2
 - (PC) 2022년 글로벌 PC 시장은 코로나19 특수 일부 포화, 데스크톱PC 판매 약세 등으로 상승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
 - (태블릿PC) 2021년 시장은 코로나19 등의 수요로 상승 정점을 기록했으나 2022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하며 성장에 고전을 겪을 전망
 - * 교육용 등의 비대면 수요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태블릿PC 시장은 2021년 2분기부터 차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3분기(4,250만 대, △9.1%) 반락을 기록. 4분기도 선수요 충족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8.6% 하락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전자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8상반기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1.4	0.1	-0.4	-0.3	-1.2	-1.2	3.0	4.2	1.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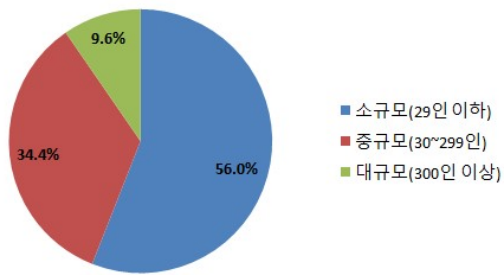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전자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1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섬유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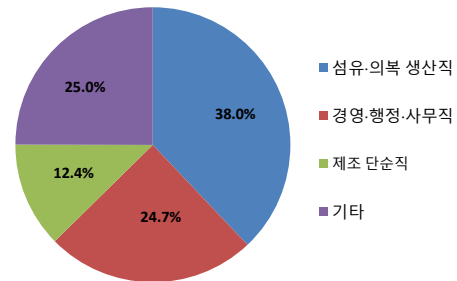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1년 하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60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4,551천 명)의 1.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62.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2.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6%)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7%), 경기 양주시(3.4%), 경북 구미시(3.4%), 경기 포천시(3.2), 서울 강남구(3.2%), 대구 달서구(3.1%)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38.0%), 경영·행정·사무직(24.7%), 제조 단순직(12.4%) 등으로 구성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0년 하반기(162천 명) 대비 1.2%, 2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7.0천 명, 채용인원 5.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5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21.0%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6%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해도 6.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6%),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3.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7.1%), 제조 단순직(18.7%), 경영·행정·사무직(15.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29.3%), 부산(23.3%), 경기(12.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9.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학력무관', '경력무관'인 구인인원 비중이 24.0%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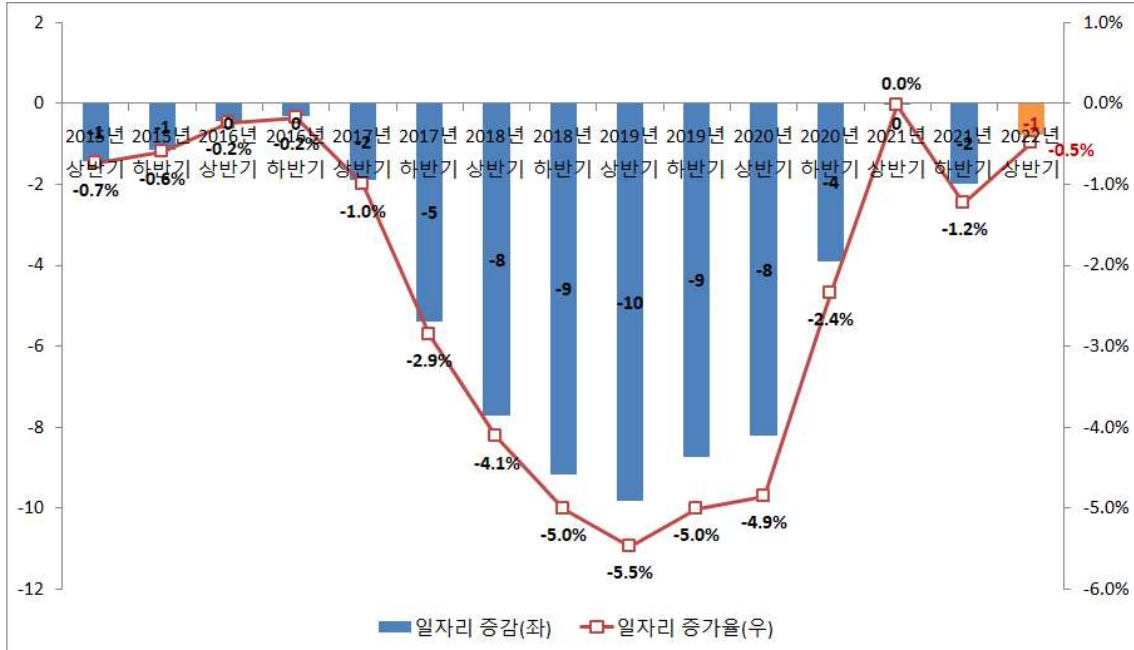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글로벌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미국 및 EU 등의 섬유 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수출 증가 전망
 - 코로나 이후 친환경 트렌드 강화, K-콘텐츠 인기에 따른 한류 재확산 등으로 고부가가치 소재 및 섬유제품 수출 증가
 - * 2022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 전망(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64.7(+5.6)
- **(수입)** 중간재·가공재 수출 증가에 따른 섬유원자재 수요 증가,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국내 의류소비 증가 등으로 수입 증가
 - 베이징 올림픽 개최기간 환경규제(생산중단), 아시아 오미크론 급증 등으로 수입 증가 폭은 제한적일 전망
 - * 2022년 상반기 섬유류 수입 전망(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86.5(+5.0)
- **(내수)** 의류·섬유제품의 보복소비(Pent-up Effect) 및 온라인 판매 증가세 지속, 자동차 등의 전방산업 수요 회복 등으로 내수 증가
 - 의류 및 자동차 등의 전방산업 회복으로 범용소재(폴리에스터 등), 산업용 소재(타이어코드, 나일론66) 등의 국내 수요 확대
 - * 2022년 상반기 섬유류 내수 전망(십억 원, 전년동기대비 %) : 33.5(+2.3)
- **(생산)** 섬유류 수출 및 내수가 동반 확대하면서 화섬·의복의 생산 증가세 지속, 설비투자 및 생산시스템 개선으로 생산력 증대
 - 스판덱스, 저용점섬유 등의 글로벌 수요 증대로 세계일류상품의 생산 증가, 스마트공장·제조로봇 구축 등에 따른 생산 효율성 향상
 - * 2022년 상반기 섬유류 생산 전망(십억 원, 전년동기대비 %) : 30.9(+1.4)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8상반기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4.1	-5.0	-5.5	-5.0	-4.9	-2.4	0.0	-1.2	-0.5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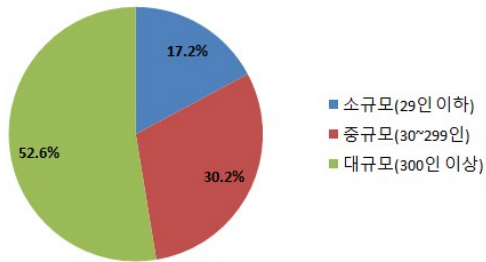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섬유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5%(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서울, 경기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철강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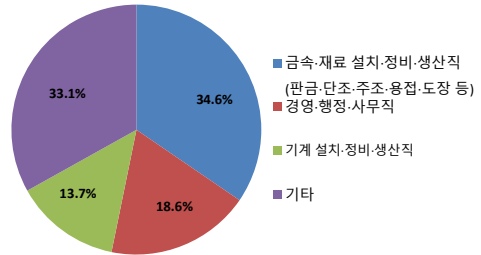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1년 하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0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 (14,551천 명)의 0.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 남구(25.8%), 충남 당진시(10.8%), 경남 창원시 성산구(7.9%), 전남 광양시(4.3%), 울산 울주군(3.9%), 경기 안산시 단원구(3.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4.6%), 경영·행정·사무직(18.6%),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3.7%) 등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0년 하반기(107천 명) 대비 2.3%, 2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6.9천 명, 채용인원 4.0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9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41.7%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1.7%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하면 27.5%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9%)',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6.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4.5%)'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5.6%), 제조 단순직(27.0%), 경영·행정·사무직(10.4%)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7.2%), 경북(14.7%), 충남(11.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무관', '경력무관'의 구인인원 비중이 34.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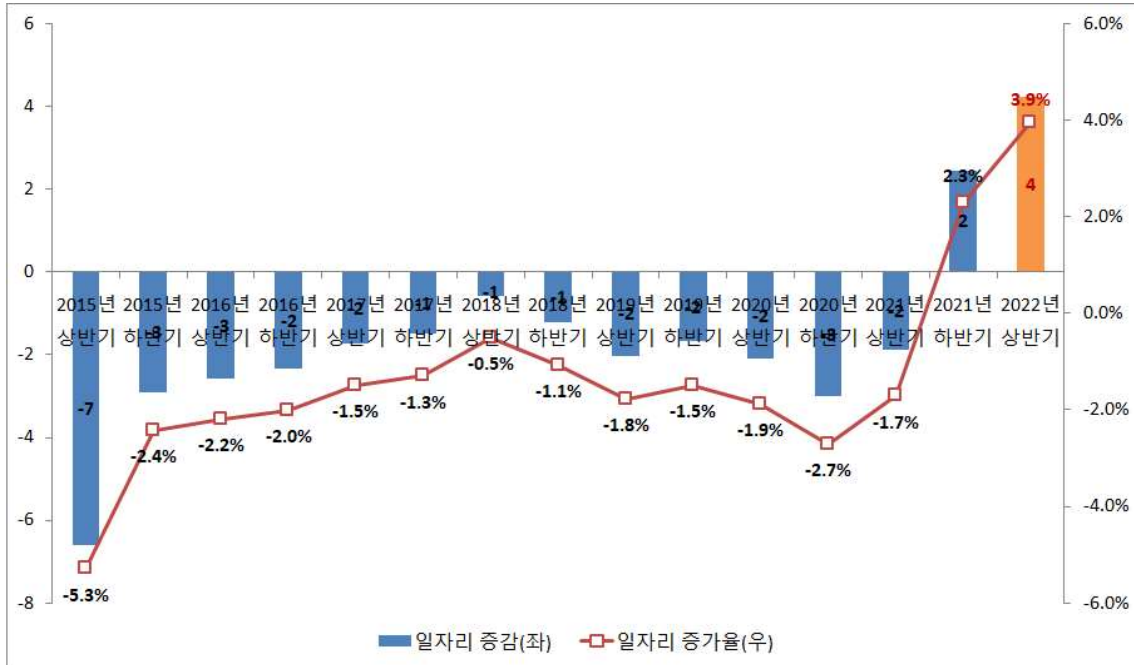
경기전망

- (내수) 2022년 내수는 연간 5.6천만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팬데믹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2년 상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세 지속 전망.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예상
- (수출) 전 세계 철강수요 견조, 물류 환경 개선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2.8천만 톤 수준으로 전망
 - 국내공급 부족의 완화로 수출여력이 확대되어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산) 국내수요 강세, 수출 확대, 수입산 유입축소 등 수급여건 변화로 연간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7.5천만 톤일 것으로 전망
 - 국내외 수요증가에 대응한 지속적인 생산 확대로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내 증가하여 3.7천만 톤 수준 예상
- (수입) 2022년 최대 수입대상국인 중국의 자국시장 우선공급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상반기에는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철강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8상반기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0.5	-1.1	-1.8	-1.5	-1.9	-2.7	-1.7	2.3	3.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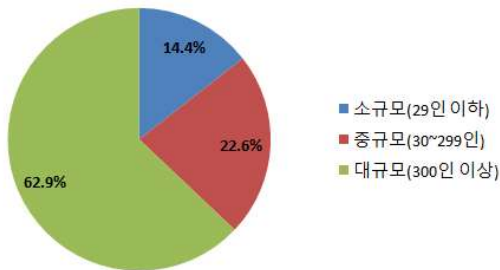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철강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3.9%(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인천, 충남, 경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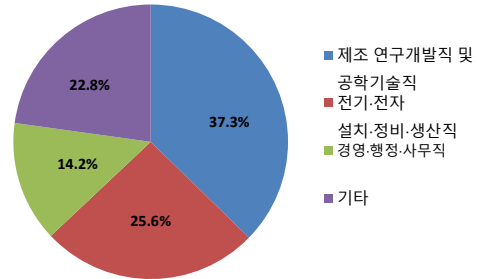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1년 하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35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551천 명)의 0.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70.1%)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9%)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3.1%), 경기 화성시(9.0%), 충북 청주시 흥덕구(6.4%), 충남 천안시 서북구(5.8%), 경기 평택(5.2%), 경북 구미시(4.3%), 경기 부천시(3.8%), 충남 아산시(3.7%)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7.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5.6%), 경영·행정·사무직(14.2%) 등으로 구성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0년 하반기(130천 명)에 비해 4.2%, 5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모두 2020년 하반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1.0천 명, 채용인원 9.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5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13.8%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9%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해도 0.4%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45.7%)',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2.3%)'에 이어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9.9%)'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3.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1.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5.6%)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45.9%), 인천(14.1%), 충남(13.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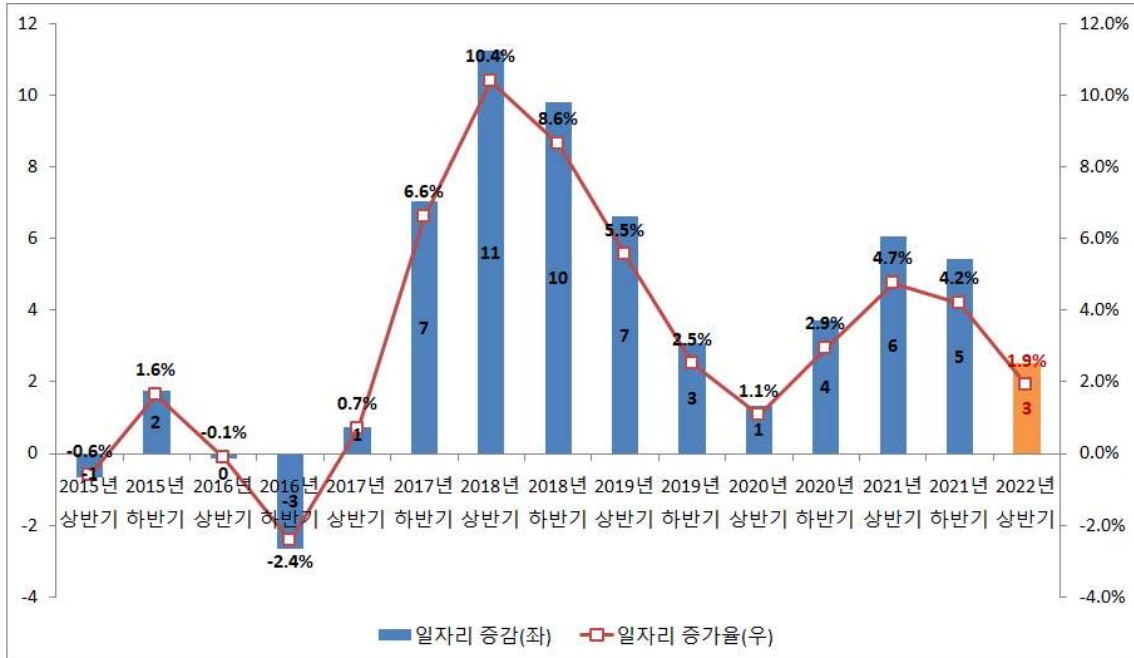
경기전망

- (글로벌 시장 전망)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1년(5,530억 달러) 대비 약 8.8% 증가(6,015억 달러*WSTS전망) 하며 2021년의 호황을 이어갈 전망
 - (메모리) 고객사 재고 수준 높아 상반기 수요 둔화 이후 하반기 회복, 공급은 시황과 연계된 탄력적인 설비투자 공급조절 예상
 - *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억\$, WSTS2021.12) : (2020) 1,175 → (2021^e) 1,582 → (2022^e) 1,717
 - ** D램 설비투자 증감률(TrendForce, %) : (2020) △1% → (2021^e) 49% → (2022^e) 2%
 - (시스템반도체) AI, IoT, 자율차, 5G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수요 확대에 따라 공급부족 상황 지속
 - *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억\$, WSTS2021.12) : (2020) 3,229 → (2021^e) 3,948 → (2022^e) 4,298
- (수출 전망) 2022년 반도체 수출은 2021년(1,279억 달러, 역대 1위) 대비 약 5% 증가한 1,340~1,350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한번 역대 1위의 수출실적 경신 예상
 - (메모리) 상반기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있으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요 회복에 돌입 →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이며 2021년 대비 3% 증가한 845~855억 달러(2021년 약 824억 달러) 예상
 - * D램가격 전분기대비 증감률(TrendForce, %) : (2022.1Q)△6.7%→(2Q)△5.8%→(3Q)△4.2%→(4Q)△2.0%
 - (시스템반도체 등) 파운드리 공급부족에 따른 단가 상승 영향 등으로 1년 만에 다시 한번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할 전망(2021년 약 456억불)
 - * 파운드리 산업은 EUV공정을 활용하는 빅테크 고객 확보, 이미지센서, DDI, PMIC 등 수요 증가를 통해 파운드리 수출 증가 전망
- (투자 전망)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2021년 대비 10% 증가, 역대 최고치인 980억 달러 예상, 특히 우리나라는 대만과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 탈환 예상
 - * 2022년 반도체 팹장비 투자(SEMI) : 1위 한국, 2위 대만, 3위 중국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연도/분기	일자리 증가율(%)
‘18상반기	10.4
‘18하반기	8.6
‘19상반기	5.5
‘19하반기	2.5
‘20상반기	1.1
‘20하반기	2.9
‘21상반기	4.7
‘21하반기	4.2
‘22상반기	1.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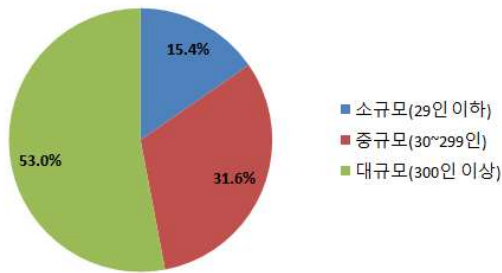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반도체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 충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자동차는 최근 안정성 및 성능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화학, 섬유 등 5,0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업제품이 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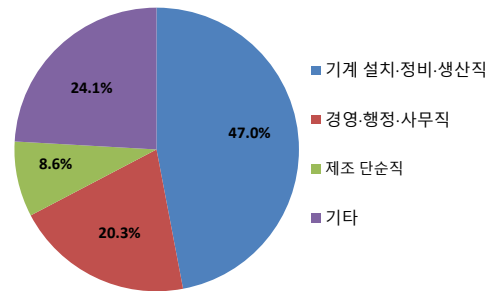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1년 하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38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551천 명)의 2.6%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울산 북구(11.0%), 서울 서초구(10.6%), 경기 화성시(6.4%), 충남 아산시(4.6%), 경기 평택시(3.6%), 경남 창원시 성산구(3.4%), 경북 경주시(3.4%)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7.0%), 경영·행정·사무직(20.3%), 제조 단순직(8.6%) 등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20년 하반기(374천 명) 대비 2.3%, 9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2.3천 명, 채용인원 9.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8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23.0%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8%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해도 8.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3.9%)',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2.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2.4%)'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36.5%), 제조 단순직(19.3%), 경영·행정·사무직(17.0%)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0.5%), 충남(15.1%), 경남(14.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 경험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8.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학력무관', '경력무관' 인력의 구인 인원 비중이 2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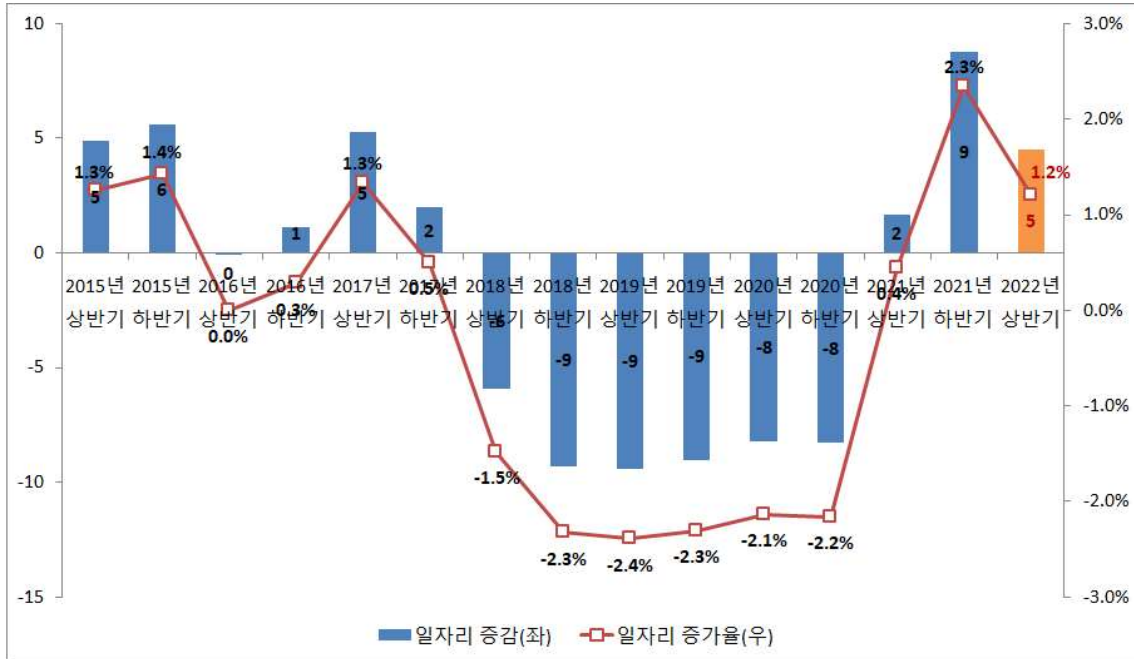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2년도 상반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가 회복되면서 내수는 전년 수준, 수출은 증가, 생산은 소폭 증가 전망
 - (내수) 국내경기(GDP 3.0%↑) 및 소비여력(민간소비 3.6%↑)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지속, 업계 신차 출시 감소 등으로 인해 내수는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 GDP : (2020) -0.9% → (2021) 4.0% → (2022) 3.0%(한국은행)
 - * 민간소비 : (2020) -5.0% → (2021) 3.5% → (2022) 3.6%(한국은행)
 - (수출) 미국, EU 및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글로벌 수요 회복, 친환경차의 해외 판매 확대* 등에 따라 수출 증가 전망
 - * 2022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21년 대비 5.3% 증가한 8,865만대가 예상되며, 전기차는 2021년 대비 38.8% 증가한 1,817만대(전체 차량수요의 20.5%) 전망(LMC Global Light Vehicle Forecast, 2021.3Q)
 - (생산) 글로벌 시장 수요 회복, 유럽(EU), 미국 등 주요 시장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친환경차의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생산은 소폭 증가 전망
- 다만, 업계는 오미크론 재확산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생산공장 폐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 만회를 위한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은 잠재하고 있다고 전망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8상반기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1.5	-2.3	-2.4	-2.3	-2.1	-2.2	0.4	2.3	1.2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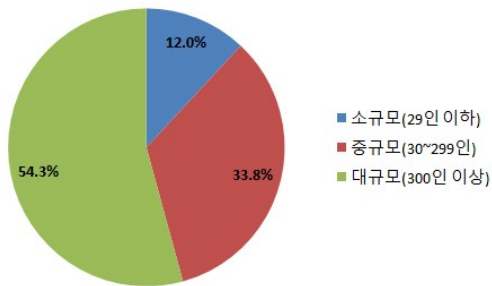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경기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서울, 인천, 광주, 울산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선도 중인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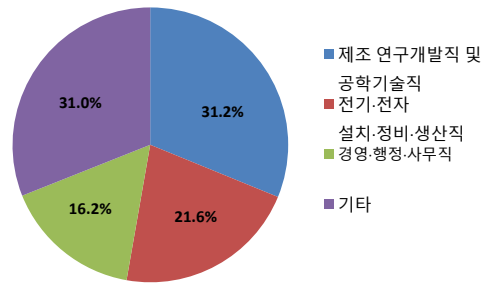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1년 하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8천 명 수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54.3%로 절반 이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12.0% 수준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1.2%),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1.6%), 경영·행정·사무직(16.2%)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0년 하반기(125천 명)에 비해 4.9%(6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했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6.2천 명, 채용인원 5.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0천 개
 - 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16.8%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2%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하면 2.6%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63.5%)',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9.6%),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각5.8%)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8.4%),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2.8%), 제조 단순직(18.8%)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8.7%), 충남(13.3%), 경북(8.3%)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1.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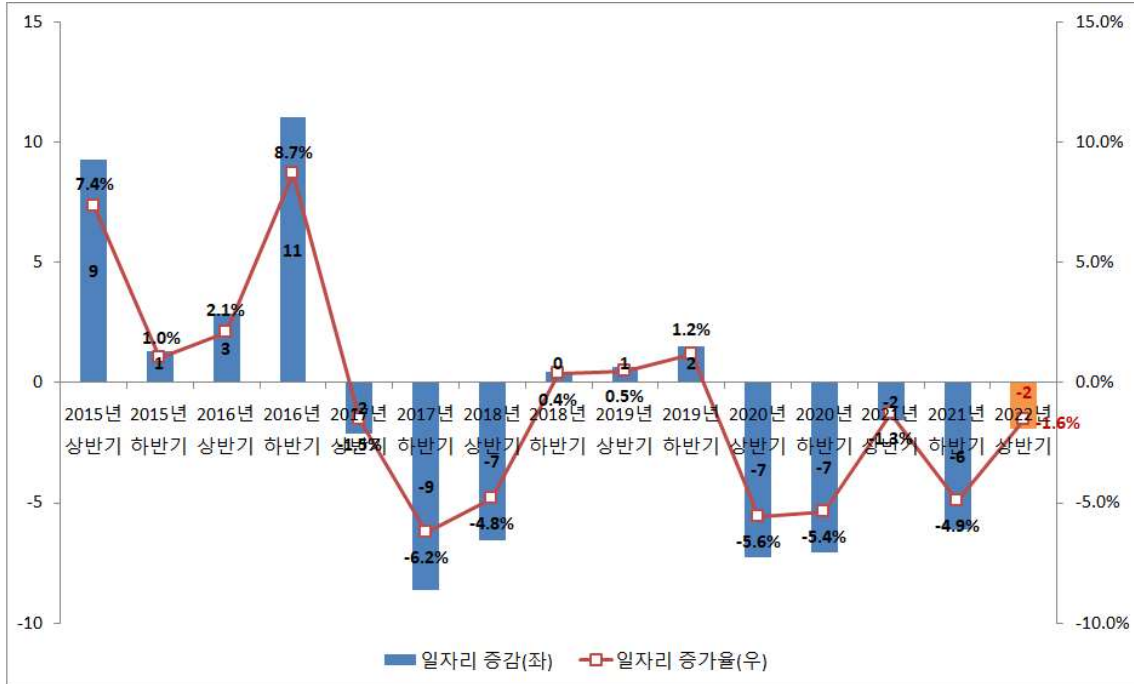
경기전망

- (세계시장) 2022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LCD 시장 축소로 전년대비 8.0% 감소한 1,453억 달러 전망
 - (OLED) 모바일·TV뿐 아니라 IT 제품 신수요 증가와 폴더블, LTPO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에 따라 시장규모 지속 성장(6.8%)
 - * 글로벌 OLED 출하량(백만대) : [TV](2021)8.0→(2022)9.4, [모바일](2021)612→(2022)677, [태블릿](2021)3.5→(2022)4.8
 - * 글로벌 모바일 OLED 시장에서의 비중(%) : [폴더블](2021)1.6→(2022)3.0, [LTPO](2021)11.4→(2022)23.7
 - (LCD) 글로벌 시장 성숙 속에 2021년 크게 증가한 언택트 수요마저 감소하고, LCD 가격 하락까지 동반하면서 시장규모 역성장(13.4%)
 - * 글로벌 LCD 출하량(백만대) : [TV](2021)259→(2022)258, [노트북](2021)276→(2022)264, [태블릿](2021)283→(2022)267
 - * TV용 LCD 가격(\$) : [55"] (2021)195 → (2022)141, [65"] (2021)261 → (2022)187
- (수출전망)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와 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2022년 수출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218.6억 달러 전망
 - * 2022년 수출(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전체) 219(2.2%), (OLED) 168(15.6%), (LCD) 51(△26.2%)
 - (OLED) 수요가 모바일·TV에서 IT 제품으로 확대되며, 폴더블·LTPO 등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5.6% 증가한 168억 달러
 - * 한국이 100%(2021년) 점유한 모바일 LTPO 비중이 2021년 20.5%에서 2022년 39.7% 확대 예상
 - (LCD) 국내 생산 축소와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26.1% 감소한 51억 달러
 - * 국내 LCD 생산Capa(백만㎡) : (2021) 45.6 → (2022) 43.2
 - * 글로벌 LCD 가격(\$) : [55인치] (2021)195 → (2022)141, [65인치] (2021)261 → (2022)187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8상반기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4.8	0.4	0.5	1.2	-5.6	-5.4	-1.3	-4.9	-1.6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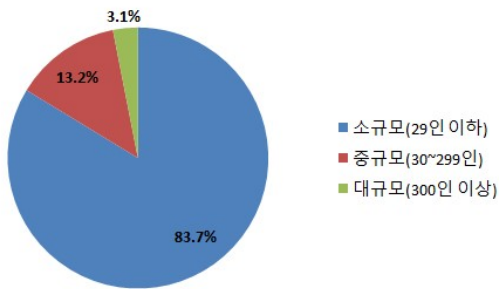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충북, 충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건설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항만 교량 등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 내지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국가중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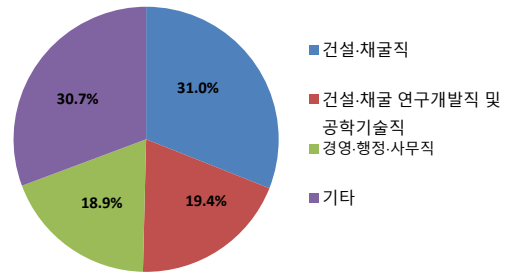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1년 하반기 현재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130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 (27,628천 명)의 7.7%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31.0%), 건설·채굴·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9.4%), 경영·행정·사무직(18.9%) 등으로 구성
-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20년 하반기(2,066천 명)에 비해 3.1%, 63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04.9천 명, 채용인원 100.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6천 개
 - 건설 업종의 미충원율은 4.5%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6%p 높게 나타났다으며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하면 9.7%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각 30.4%)'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1.1%)'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66.9%),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1.0%), 경영·행정·사무직(5.4%)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15.0%), 경기(14.9%), 경북(10.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무관', '경력무관' 인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40.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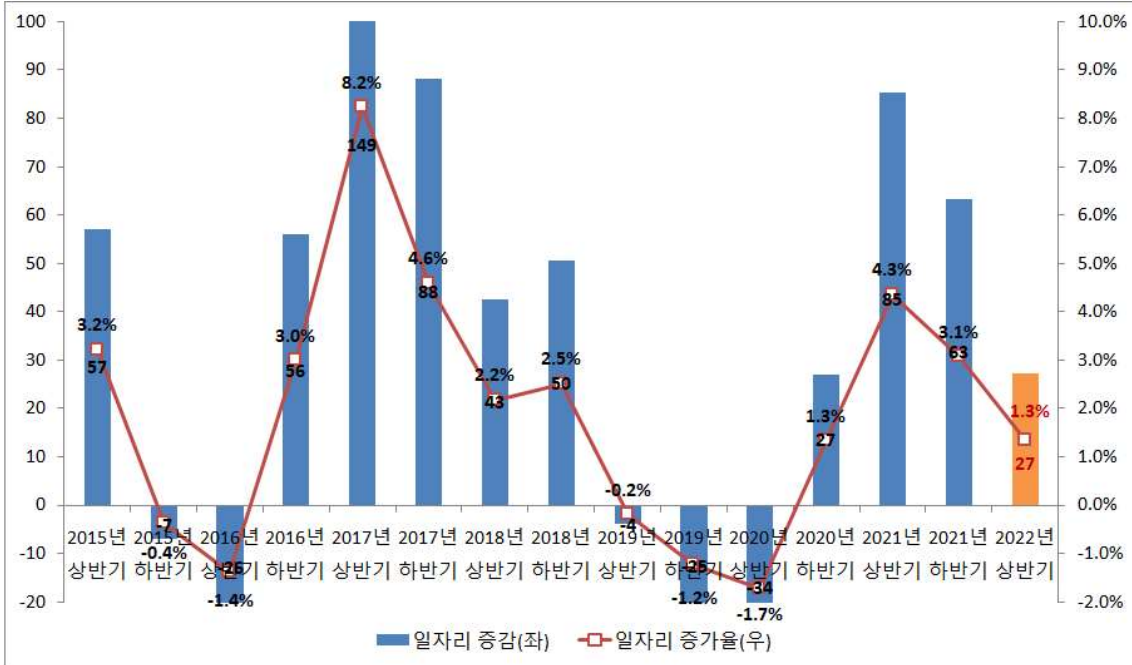
경기전망

-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년 대비 건설 수주 증가세 지속
 - 민간, 공공 모두 토목, 비주택 건설 수주가 증가
 - 공공을 중심으로 2022년에도 수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다만 자재, 금융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건설 투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
 - 2021년 하반기 들어 건축 투자가 증가했지만 토목 투자 부진은 계속되면서 2021년 건설 투자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2022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건축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공공 부문 토목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건설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8상반기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	2.5	-0.2	-1.2	-1.7	1.3	4.3	3.1	1.3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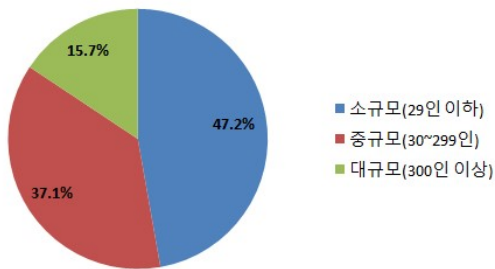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3%(2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융 및 보험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중개 업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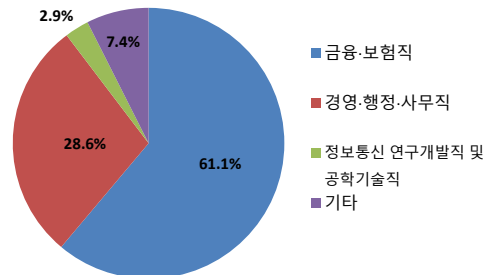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1년 하반기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797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7,628천 명)의 2.9%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61.1%), 경영·행정·사무직(28.6%), 정보 통신 연구 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9%) 등으로 구성
-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2020년 하반기(776천 명)에 비해 2.6%, 20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취업자는 감소했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4.6천 명, 채용인원 13.7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9천 개
 - 금융 및 보험업종의 미충원율은 5.9%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2%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4.2%)과 비교하면 8.3%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51.3%)', '기타'(19.7%),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9.2%)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57.2%), 경영·행정·사무직(30.4%),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5.2%)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54.9%), 경기(12.8%), 부산(7.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2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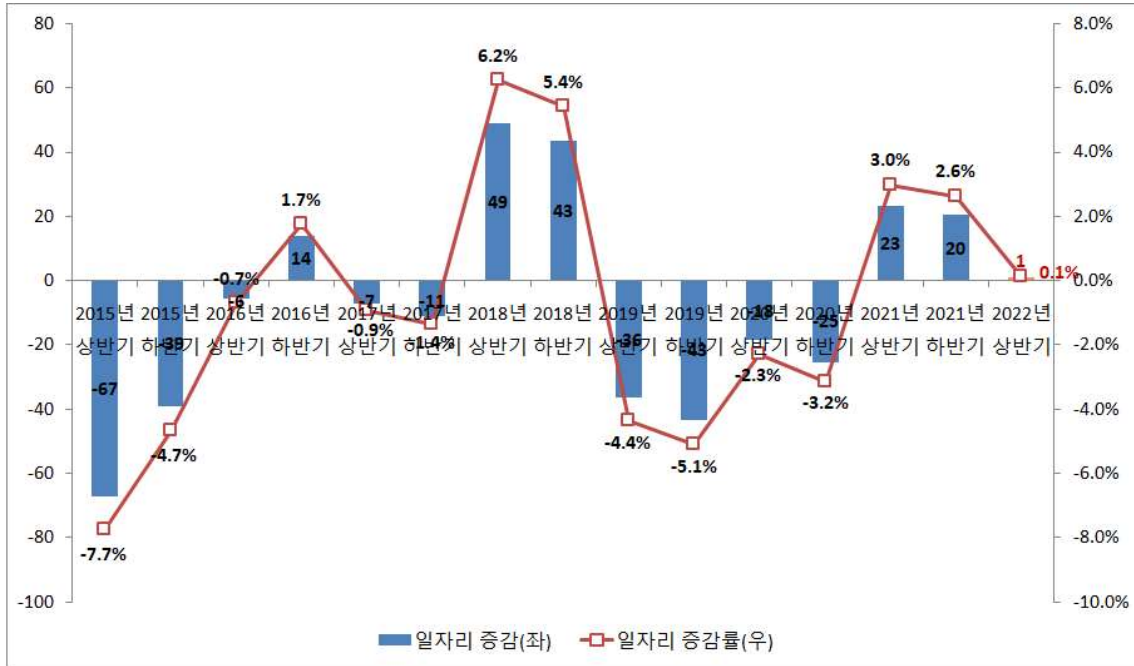
경기전망

- 금융권 자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금융권 자산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수익성 역시 개선
 - 2022년에도 자산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순이자마진 상승과 함께 은행 등 금융권의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던 기업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금리 인상과 함께 순이자마진이 상승하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이익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보험 산업의 전반적 영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확산의 충격 완화, 금리상승 전환 기조 등은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내외 금융시장환경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손해보험 산업은 경기 회복, 질병·건강 보험 등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예상. 다만 자동차 보험 및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은 손해보험 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022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금융 및 보험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8상반기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6.2	5.4	-4.4	-5.1	-2.3	-3.2	3.0	2.6	0.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상반기 금융 및 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용어정의>

- ▷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일자리 수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 * 일자리 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디스플레이 업종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건설, 금융 및 보험 업종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함
- ▷ 일자리 증가율(%) = $\frac{\text{이번기 일자리 증감}}{\text{전년 동기 일자리 수}} \times 100$
- ▷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판단 기준
 - 일자리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 ▷ 미충원율(%) = $\frac{\text{미충원인원}}{\text{구인인원}}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업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기초로 하며, 디스플레이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업종별 일자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 * 전망 모형 등 자세한 전망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 방법(2015, 이시균, 강민정)" 보고서를 참조